


## 보 도 자 료

	◆ 2025. 8. 7. (목) 배포
	◆ 총 3쪽 (본문 2쪽, 붙임 1쪽)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	이유경 극지환경재현실용화센터사업단장 ☎ 032-770-8470
	이지영 극지환경재현실용화센터사업단 ☎ 032-770-8471
강민구 홍보실장 ☎ 032-770-8631	
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 ☎ 032-770-8637	

### 극지연, 인천시교육청과 ‘기후위기 대응’ 교육 협력 인천 학생·교사 대상 극지과학탐구(Polar Open Lab) 프로그램 성료

- 극지연구소(소장 신형철)는 인천광역시교육청(교육감 도성훈)과 함께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인천 지역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극지환경재현실용화센터에서 극지과학탐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.
- 극지과학탐구(POLAR OPEN LAB)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양 기관이 앞서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기획됐다.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, 참가자도 90명에서 50%가량 늘었다.
- 전반부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는 인천 지역 중·고등학교 학생 120여 명이 참여했으며, △남북극 기상과 기후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‘남북극 하늘 살펴보기’ △빙하코어 시추 과정을 배우는 ‘빙하의 비밀 탐구’ △극지 미생물의 생존전략을 실험하는 ‘빙권 미생물 탐구’ △극지 바다 생태계를 이해하는 ‘플랑크톤의 세계’ 등 다양한 주제 강의와 실험 교육이 이뤄졌다.

- 인천 지역 초·중·고 교사 30여 명은 △빙하 코어를 통한 온실가스 분석 △남극 해저 퇴적물로 살펴보는 기후변화 △극지 잠수동물, 지의류, 미세조류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 △변화하는 우주 날씨 등을 교육받았다.
- 모든 강의와 실습은 극지연구소 소속 연구원들 직접 진행했으며, 쉽게 접할 수 없는 운석, 극지 미세조류 등 시료와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. 참가자들은 극지과학 심화 학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극지 연구가 왜 핵심 요인인지에 대한 인식도 넓혔다.
- 이번 프로그램은 극지연구소와 지역 교육청 간 협업을 바탕으로 이뤄진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며, 양 기관은 앞으로도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인천 지역 특화 생태전환 교육의 거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- 이유경 극지환경재현실용화센터사업단장은 “극지과학 꿈나무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생생한 극지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. 이번 프로그램이 기후위기 시대를 이겨낼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#### 붙임 1. 극지과학탐구(Polar Open Lab) 프로그램 모습



위-학생교육 프로그램: 편광현미경으로 운석 관찰(왼쪽), 극지 플랑크톤 실험(오른쪽),  
아래-교사연수 프로그램: 얼음 결합 단백질 실험(왼쪽), 동위원소 실험(오른쪽)